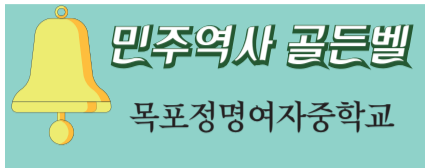


“5·18의 가치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 됐어요”



3학년 159명 참여... 치열한 예·본선 초반 무더기 탈락 패자부활 재도전 대상 김수아양 “역사공부 열심히”

“1등은 나의 것!” 8일 전남서부보훈지청이 주최·주관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민주역사 골든벨이 목포정명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졌다.

민주역사 골든벨은 퀴즈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박준석 목포정명여중 교장은 축사를 통해 “목포정명여고를 졸업하고 전남대 재학 중 노태우 정권에 대해 항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염원한 박승희 열사의 동상이 교정에 있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역사의식은 대단했다”며 “이번 골든벨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제자로 나선 양홍석 여주고 교사가 시작을 알리자 골든벨에 도전하는 159명의 3학년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예선에 입했다.

‘○×형태’로 진행된 예선 첫 번째 문제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과 박준석 목포정명여자중학교장, 목포정명여중 3학년 학생 등이 8일 교내 정명관에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주제로 열린 찾아가는 민주역사 골든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는 12·12사태를 묻는 낮은 난이도의 문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볍게 통과했다. 그러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준으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집회 시위가 계속됐다’는 2번 문제에 ○를 택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탈락하며 강당이 술렁였다. 연이어 나온 3개의 문제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16명의 학생들은 먼저 본선에 진출했다.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않아 무더기 탈락했던 학생들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노렸다.

단답식으로 진행된 패자부활전은 탈락자 가운데 답을 아는 이들이 출제자 앞에 선착순으로 줄을 서 귓속말로 정답을 말

하면 본선에 오르는 방식이었다. 이후 진행된 본선은 예선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졌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냈다.

본선 첫 번째 문제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 광주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공동체를 유지했는데 광주 시내 도로변에서 아주머니들이 큰 가마솥에 ‘무엇’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는가를 묻는 문제였다. 이날 오픈북으로 진행됐기에 학생들은 열심히 책을 뒤져가며 정답인 ‘주먹밥’을 찾아내 화이트보드에 금방 썼지만 일부 학생들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태극기’ 등 기발하면서도 그럴듯한 오답으로 재미와 감동을 안겨줬다.

본선에 오르면서 붙은 자신감은 잠깐,

역대급 난이도의 두 번째 난제가 찾아왔다. 군인이 아닌 시민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은 평소에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지만 당시 시민들의 행동은 역사적으로 ‘무엇’ 권의 차원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정답은 ‘저항’이었다. 학생들은 자유, 항쟁, 불복 등이라는 매력적인 오답을 써내 대거 탈락했으며 오직 정답을 맞춘 2명만이 결선에 올랐다.

탈락자 가운데서도 여러 문제를 거쳐 총 6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다. 수상 학생은 △대상 김수아양 △최우수상 이지지원양 △우수상 전호주양 △장려상 백유나·심인서양 △참여자 박보운양이며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

급됐다. 이날 최후의 1인자 골든벨의 주인공이 된 김수아양은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선생님을 꿈꾸기도 했는데 1등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날 민주역사 골든벨 행사에 참석한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광주·전남의 5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않길 바란다”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yein.kim@jnilbo.com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구형

철거 하청업체 부당 선정 혐의

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관련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할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8일 402호 법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

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 담당 임원 A씨와 철거 하청사(주)한솔기업 대표 B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기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철거 공정 관련 입찰에 앞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 견적을 하청사 대표인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의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내 철거·시공 계약에

서 한솔기업이 미리 적정 입찰견적을 귀뎀받고 공사를 따내자, 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엔씨는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하청공사를 ‘나눠먹기’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3년 전 불의의 참사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업체들이 각자 판단한 입찰가로 응해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된 것”이라며 “정략을 받거나 업체 선정에 부당 관

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도 “관례라는 이유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선처를 구한다’라고만 입장을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송민섭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